

쇼핑몰 '해남미소' 일본 진출 가시화

게이오 백화점 관계자 해남 찾아 김치·김 시설 둘러보고 수출 협의 백화점에 '해남 전용관' 구축 추진

해남 농수산물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현실화 되면서 수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남군은 500여 업체 1200여 품목이 입점해 있는 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와 연계한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게이오 백화점 등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일본 소재 수출 대행사인 노아에서 해남미소에 관심을 가지고 게이오 백화점 등에 일본 수출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게이오 백화점은 1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특히 도쿄내 신주쿠점은 연간 1500만명의 고객이 찾는 일본 내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이다.

게이오 백화점과 노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해남을 찾아 관내 수출기업에 방문해 시설과 제품 생산과정을 살펴봤으며, 40여개 제품들의 직접 설명을 듣고 시식해 보는 품평회 시간을 가졌다.

일본 관계자들은 해남배추와 김을 사용해 만들어진 김치와 김 가공시설을 방문, 정결은 물론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신뢰감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품평회를 통해 K-푸드의 맛을 한 번에 느낄



게이오 백화점과 노아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지역 수출기업에 찾아 해남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남군 제공>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한국 지자체와 일본 기업이 상호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는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해남을 직접 와서 보고 느끼니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명원관 군수도 일본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남 농수산물품은 어느 지역보다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남미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게이오 백화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11월 게이오 백화점 온라인몰에 '해남미소 전용관' 구축을 목표로 수출 참여 기업 선정 및 일본 후생성 사전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몰 오픈과 동시에 판촉행사를 진행해 해남의 먹거리를 일본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일본 카드사 순위 2위인 세존 카드사와 함께 포인트몰을 진행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갯벌에 낙지 방류...생태계 균형 조절

자원 증대 주민 소득증대도 기대

신안군이 최근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 조절을 위해 낙지 4000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낙지 방류사업은 낙지자원의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안군 수산연구사업소와 협업으로 암-수 1쌍을 2-3일간 교접작업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100여 개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방류한 낙지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낙지 금어기에 방류를 추진하고 낙지 자원량 증대를 통해 갯벌생태계 회복과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유네스코 세계자



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신안갯벌의 낙지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낙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주민들과 협력해 낙지자원 증대를 통해 생태계 회복과 주민들 소득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민간기업과 소형 풍력발전 추진 협약

2개 업체와 기술·정보 교류 협력

영암군이 ㈜에코커뮤니티, ㈜유일과 '소형 풍력발전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순환경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소형 풍력발전의 성공 추진을 위해 기술·정보 교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이윤희 ㈜에코커뮤니티 대

표, 유인숙 ㈜유일 대표 등은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발전의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서는 3차간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이뤄나갈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이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오늘 협약"이라며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근로자 현장 안전체험교육

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이 지난 20일 담양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사업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체험교육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 15명이 참석해 안전에 관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중장비 및 사다리 전도 체험, 전기 안전 체험, 안전대 체험,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실습형 교육에 참여한 현장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들은 주입식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건설현장 맞춤형 체험식 교육을 진행해 안전보호구 착용과 현장 안전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게



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직원들이 지난 20일 담양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대 체험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제공>

사업단의 설명이다. 박형수 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장은 "안전은 비용과 속도에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안

전체험교육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완도 치유 페이' 사용·혜택 확대

완도군은 '완도 치유 페이'를 관광객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혜택을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치유 페이는 2인 이상의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

문해 소비한 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 상당의 쿠폰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 1개 카드의 영수증만 인

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자 또는 동반인 카드 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특히 보길, 청산도 등 7개 섬 지역 1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관광객 발길을 전 지역으로 유도하고 균형 있는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동외호수공원 자연 치유 산책로 조성

진도군이 동외호수공원 일원에 맨발로 걷는 길(어싱길)과 황토볼 체험장을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치유(힐링)할 수 있는 산책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걷기 좋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행정색색 수국의 향기를 따라 걷는 맨발로 걷는 길(어싱길)에는 조명 시설도 함께 설치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 황토볼 체험장은 발바닥 지압을 통해 혈액순환과 피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건강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동외호수공원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자연과 건강이 어우러진 주민 친화형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도 동외호수공원 치유형 산책로.

관리를 보완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